

#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36回平昌郡議會

第 3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5年 11月 17日(金) 10時00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郡政에關한質問

附議된 案件

1. 郡政에關한質問(繼續) \_\_\_\_\_ 1 面

(10時 00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 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오전에는 세분의원 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1. 郡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2分)

○ 議長 金樂雲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김두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議員 : 김두경 의원입니다.

먼저 봉평면 도읍정비사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평면 시가지 도읍정비는 본군의 어려운 예산을 반영시켜 '93년도 부터 금년까지 3년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공정 40%의 저조한 진척으로는 '96년 4년차에도 도저히 마무리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에 봉평도읍정비 사업은 정책사업으로서 2년차에 걸쳐 마무리 할려고 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공정으로 지연되어 3년차에 걸쳐서도 사업이 월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주민의 협조 부족과 또한 예산확보 문제에 원인도 있겠지만 좀더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갖고 주민과 협의 추진 하였으면 이렇게 4년차 사업까지는 이월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철거 농가에 대한 균유지 택지분양문제, 폐도불하, 구거 불하등 모든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주민의 불만은 물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농가의 부담과 군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여러가지로 손실을 보게된데 대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봉평은 (주) 보광 휘닉스파크 개발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문제로 우회하여 본지역을 통과함에 있어 '96년 도읍정비사업과 병행해 시가지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성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및 모든 문제점에 대한 방안강구와 '96년에는 도읍정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실명제 및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명제는 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참여한 공무원의 직,성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명제를 처음 제안 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경제 정의실천

시민연합으로서 지금은 9월 1일부터 서울시가 전격시행하고 몇몇 자치단체가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 측면에서는 여러모로 편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책임 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생활자치의 장이라고 볼때 행정 조직이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공무원의 의식 전환 뿐만 아니라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 지방자치 실시 100일을 맞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방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 취임이후 80%정도가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주민들은 74%가 공무원의 서비스 개선에 별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45%는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지방자치 이후에도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이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첫째, 행정실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집행부가 실시하는 세금 실명제와 민원실명제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주택, 상수도, 위생업소, 이·미용업 허가, 주차위반, 산림조림 벌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문등이 실명화 해서 공문자체가 주민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에게는 편의를 도모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자기가 처리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 하므로서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실명제 전면 실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 실명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창안제도, 또는 제안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군정에 대한 좋은 의견이 군 정책에 반영 되었을 때에는 일시적인 표창이나 특전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제안이나 창안이

군 정책에 반영 되었을때는 언제 누가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군정에 이바지 하였다고 실명화 하고 영구 보전 하므로써 지자체 원년의 성공적인 사례의 지표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구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의 최대 현안은 농업과 관광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군을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볼 때, 대화면 이북 지역은 오대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 유적과 용평리조트등 민간 자본 유치로 경제 활동과 아울러 도시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며, 특히 진부~ 동해간 산업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우리 군민들에게는 큰 희망을 갖게 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화 되면 주변개발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봉평을 중심으로 한 보광 휘닉스

파크 완공과 함께, 봉평 도시계획 변경과 도움이 정비 되면 명실 상부한 배후도시로서 면모를 일신 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평 인터체인지 설치로 이지역이 평창군의 관문으로서 교통요지화 될 전망으로 기대하는 바 큼니다.

둘째, 특히, 지역개발의 선결 요건은 도로의 접근성이 문제인데, 2001년 영동고속도로 4차선 완공전에 31번 국도인 장평에서 평창 소재지간 도로가 1차적으로 4차선으로 확·포장되고 평창에서 제천간 도로도 4차선화 되어야만 우리 남부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이 앞당겨 진다고 판단하는데, 군수의 확실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31번 국도는 건설부 소관이므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6.27 지방4대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공약을 하지 않은 후보는 없을 정도로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전라도 남원시와 가까운 홍천군이 민간자본 유치에 위한 투자여건 설명회를 가지므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수의 공약사항중에는 외지 기업이 우리군에 투자 할때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아무리 투자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개발 부담 문제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인데, 군수께서는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계속 주장할 것인지 군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균형개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 및 피해목 벌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역사 이래 처음으로

솔잎혹파리병이 발생하여 수십년 동안 가꾸어온 산림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산주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물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병 방제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피해를 줄여 왔다고는 하나 일부 군관내에는 전혀 방제 대책이 전무하여 많은 임목 피해로 산주들의 불만이고조된 실정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우선 고속도로변 관광지변 등 많은 인파가 왕래 하는 곳에 방제를 실시 하다 보니 전면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병충해 지역이 발생하였을때 좀더 적극성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반영 시켰다면 많은 면적에 피해를 줄였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지역에만 우선 방제를 실시 하다 보니, 전시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게 되고 산림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행정을 펼쳐 오고 있다고 봅니다. 말로만 나무를 심고 산을 푸르게 가꾸자

는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지말고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방제 지역 임목방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산림내 피해임목은 날이 갈수록 썩어만 가고 상품가치도 없고 판로 대책도 없게 되었습니다.

전혀 소생 가능성이 없는 임목이라고 판단 될때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벌채허가를 득하여 산주들로 하여금 수십년 동안 임산물이 다소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산림을 가꿀수 있는 의욕을 고취 시켜야 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향후 벌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등은 일반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및 인근 지역에 특정폐기물처리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와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지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단속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서 환경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및 생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 지원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조례 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면 조치 내역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평면의 경우 96년에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96년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별로 실과장과 단체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김두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늘 함께 하는 마음으로 우리 평창군을 자랑스럽고, 즐겁고, 보람된 삶의 터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도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대책으로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주민 불편 해소 방안, 토지보상의 현실가 차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은 지가와 현실가의 막대한 차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토지를 매매하지 않기를 결의하는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중재와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은 목소리의 소수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평지구 관광개발계획 변경승인 사항으로서 문화체육부, 강원도로부터 권역권 계획변경승인이 되었는데, 군의 적극적인 관광개발 의지 결여로 봉평의 문화예술관광단지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지역특색을 자랑할 수 있는 관광개발단지로 개발하여 본군을 홍보하는데, 훌륭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봉평에 문화예술관광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지역주민과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기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관광단지와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둘째, 적극적 개발 자세로 지나치는 관광지에서 거점기는 관광단지로서의 개발 극대화 방안은 없는지, 없다면 왜 타당치 않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보광측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서안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황기원 교수의 자문으로 평창, 봉평 문화예술관광단지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셋째, 외화 획득원으로 역할과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인력고용기회의 증대, 지방재정수입과 관광관련 산업의 진흥, 끝으로 지역이미지 향상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발굴 차원에서 평창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답변해 주시고, 넷째, 지역적 여건을 존중하는 문화예술관광단지, 사회적 여건을 수용하는 문화예술관광단지, 21C 관광 레저 패턴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평창군만의 독특한 문화예술관광단지로서의 산재된 문화 및 관광자원을 대형리조트와 연계시킬

수 있는 거점 관광단지로 우뚝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검토를 촉구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평창군의 관광시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갈등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하여 개발을 하여야 함이 당연지사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을 자제 해야 하는 어찌면 아주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군은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문제들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주안에서 개발 및 보존이 병행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둘째, 오대천, 흥정천, 평창강등에 깨끗하고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한 시책추진 및 대응책에 대해서,

셋째, 평창군의 관광개발 기본 방향과 구상은 어떠한지, 관광농원의 구체적 개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평창군은 고냉지 감자의 주생산 군이기



도 합니다.

그러나 주 생산지로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어떠한 이벤트 행사도 없는 실정입니다.

막다른 입장에 선다면 남부지방의 감자와 차별화 홍보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 생산지로서 감자 상품의 홍보와 우수성 강조를 위해서 문화행사로 연결되는 감자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시행할 집행부의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평창읍에서는 노성제, 봉평면에서는 메밀꽃과 가산 이효석선생님을 주제로 한 효석백일장, 용평면에는 농악대, 도암면에는 눈꽃축제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감자를 주 생산으로 하고 있는 진부면은 이렇다 할 행사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자를 테마로 하는 문화 이벤트 행사를 기획한다면 진부면에 유치할 의지는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

시오.

다음은 진부고수부지 양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부 고수부지에 매립 경위 및 하천기본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많은 면적을 매립하고, 들망태로 매립지 유실방지를 위해 보존을 해 놓았지만 실질적 이용이나, 효용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력의 동원으로 조속히 진부면민의 숙원이 해결되어 시설물도 충분히 설치하고, 투자하여서 체육공원으로서 대화의 광장으로서 면민의 화합과 친선을 다지는 우정의장 등으로 마음 편히, 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랍니다.

아울러 진부시가지 정비계획에 있어서 하수도로 인한 상습 수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의 위험이 또한 많이 따르고 있는 현실이기에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진부시가지 정비 추진계획 및 구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정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초대의회의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은 사업이면서 입주자로부터 또, 입주 예정자로부터 여론과 원성의 대상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패사업중의 한 단면입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도 어느정도 해결되었고, 재산권 행사를 위한 동기문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간선도로가 3m75cm 밖에 되지 않아서 차량통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주차난 해소 방안과 도로및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오·폐수처리장의 좀더 효율적인 관리 대책 강구와 미분양택지의 향후

실질적 분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로 인한 피해 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올창한 천연림을 자랑하는 산림군으로서 앞으로 임도 개설시 문제점 최소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상습 수해피해지 항구 복구대책과 예방책을 강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곳의 주민들이 답변을 믿고 마음 놓고 살며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임도시설로 인한 피해농가의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도는 개인 시설물이 아니고, 임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공공시설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농민이 농작물 피해를 보았다면 마땅히 공공시설물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되어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실지 보상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평창읍 쓰레기 매립장이 올 여름 집중 호우시 침출수로 인하여 농가의 수박밭에 피해를 발생 시켰습니다.

그 수박밭의 피해농가에 대해서 수해복구비가 아닌 공공시설물 피해보상규정에 의여 210만5천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 되십니까?

똑같은 공공시설물이요, 피해농작물인데, 한 군청안에서 환경보호과는 보상이 되고, 산림과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임도는 분명히 공공시설물입니다.

피해농가에 확실한 피해보상을 본의원은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93년 제17회, 18회 평창군 임시회 임도 시설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답변자료에서도 사업노선 선정이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였으며,

정기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와 토사유출 부분은 수벽을 설치 산사태 방지에 주력을 다 하겠다고 했으며, 설계 누락부분의 수벽설치, 묘목식재, 목초종자파종에 대해선 조속히 마무리 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올해에도 엄청난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부정확한 계획과 시설구축으로 자연생태계를 파악하며, 임도 인근 임야의 무분별한 유도 및 절성토지의 노출 등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며, 임도의 붕괴 및 토사유출의 원인이 유발되어 해당 지역 주민이 비만 오면 불안에 떨며 생활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임도 시설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 피해를 보았습니다.

동등하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과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업시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영농방법이 원시적 방법이 아닌

현대적 기계화 영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남부권과 북부권의 농사  
방법이나 농산물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농사이기 보  
다는 기업농에 가까운 투기성 농업이  
주된 농업 형태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  
다.

몇몇 사람은 얼마간의 돈을 벌었지만,  
대다수의 농민은 농작물값의 파동이나  
유통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고 생활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농촌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우리군의 농가당 연간 소득은 얼  
마이며, 부채 현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투기농 방지와 유통구조 개선책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깨끗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농  
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 및  
구상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의료원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역시 초대의회에서

부터 현재까지 대다수 군민의 의료수혜  
차원에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곳  
입니다.

전체군민의 의료수혜차원에서 위치선정  
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습  
니다.

첫째, 전체군민의 수혜 제공 방안은 없  
는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별 진료인원의  
비교와 수입, 운영비등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둘째, 공석중인 원장 4급과 진료부장 5  
급의 결원사유 및 공석으로 인한 문제점  
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함께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  
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  
하거나, 보호 받기 힘든 아동, 노인, 부  
녀, 심신장애자들에게 집약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들입니다

첫째, 현재 평창군의 복지시설 부분별  
확장및 건립 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산업화 직전에 따른 후천적 장애인의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오염등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선천적 장애인 출현율도 예년 년도에 비하여 훨씬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2.5%로 추정되며, 그중 평창군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부에 의하면, 약 1,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둘째, 그러면 늘 소외 받고 있는 그들의 복지 대책과 자립의지 해소 방안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 장구를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누가 감히 장애인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 가운데 " 병신이 육갑을 한다 "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신아닌 사람이 없는데, 무엇이 병신 육갑입니까?

지체나 심신장애만이 장애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자도 분명히 장애자인 것입

니다.

셋째, 장애인 단체 육성 및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환경조성과 편의 시설등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법적인 제도 장치의 완비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되기에 다시 한번 더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중 하나 가운데, 물을 배제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더욱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개선을 위한 욕구등이 날로 높아질 때 자연부락 단위의 간이 상수도 시설 요구가 확대 되어 가는 현 실정입니다.

첫째, 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유지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급수의 위생관리 기타 급수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유지관리 위원회가 시설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한 시설 단위별 군비 투자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주면서 주민 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평창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무시하고, 군수의 지침으로 1가구당 50만원의 자부담을 부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침이 조례의 상위법이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자부담이라는 명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8조 1항을 보면 시설물의 보수시 군수와 위원회가 각 50%씩 보수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외에는 자부담 원칙 규정은 어

는 조항에도 없습니다.

이 항목을 적용해서 신시설에도 자부담을 유도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단위별로 1,000 만원정도가 주민자부담이 되고 있는데,

2억5,000만원 공사에서 1,000만원 때문에 군에서 설치해준 상수도가 아니라 우리가 설치한 상수도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행정서비스에서도 그렇지만, 주민 편의 위주의 사업 시행들이 주민 자부담을 없애고 있는 터인데, 먹고 사는데 없어서는 안될 물로 인한 주민 자부담의 문제점과 원천적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자부담금의 처리 절차에 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셔서 평창군의 신뢰행정과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집행부의 결단으로 추후 '96년부터의 사업시행시 자부담 없이 맑은 물을 공급 받아서 주민들이 복지 혜택과 문화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지난 8월 25일 공포된 조례 제1467호 평창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저소득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통합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한후 현재까지 동조례가 정한 2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동조례 공포와 함께 폐지된 종전의 조례를 근거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새마을소득금고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등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행정적 차원에서나 상식적 차원으로 보아 얼마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금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통과 시켜

준 조례에 의해 공포를 하고도 시행규칙을 시행하지 않아서 저소득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과연 그 행위가 당위성을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군으로서 면모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성 높은 산림자원의 조성계획과

둘째, 산림 부산물의 생산및 지원계획에 대해,

다음은 축산진흥 구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축산물의 장기 수급대책에 대하여

둘째, 초지조성의 문제점과 현실성에 대해서,

셋째, 육종사업의 점진적 방향에 대하여

다음은 평창군의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구및 직제개편 의지는  
둘째,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은

셋째, 일선행정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 강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주적인 숙원 사업의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둘째, 지역간 불균형 투자로 인한 다수적인 군민의 불이익 정책에 관해서는 미리 제출된 군정질문 요지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우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3分 停會)

(11時 00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발왕산 개발에 대하여 추진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용평리조트는 74년 부터 이지역에 정착한 관광호텔, 스키장 개장을 시작으로 많은 유치는 물론 겨울 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또한 전국에 많은 스키어들의 양성의 장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세계에 진출 할 수 있는 많은 선수들도 배출 되었으며, 지역발전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다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97월드컵 스키대회,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유치는 국민뿐만 아니라 도민과 전국민이 갈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시기를 볼때 단기간에 개발될 수 없으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



각 됨으로 발왕산 개발에 대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군의 추진 계획과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6.27 지방4대선거이후 전면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면서 군민의 욕구는 날로 높아 간다고 생각 됩니다.

본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형편임으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제발전을 토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집행부에서 직접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 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과 민자유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계획과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싸리재 현대레포션문화센터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싸리재에 건축하다가 중지한 현대레포션 문화 센터는 영동고속도로와 근거리에 있어 왕래 하는 사람으로 부터 좋은 인

상을 주지 않을 뿐더러 시공회사가 중지한 건축물 또한 허술하고, 부실될 염려가 있으므로 군에서는 용도변경이나 재시공 여부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와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지역개발태세 확립과 평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고 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군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심어 주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군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 조성 사항과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으로써 노인의 자조·자활 능력을 개발하여 자가보장 능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한지 수개월이 경과 하였으나, 기금조성의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노인복지 기금조성 사항과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 15일자로 '9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1차 변경 계획 동의안 사항중에 평창경찰서 신축부지 매입건 평창읍 하리 219 -2외 13필지 15,120㎡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취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필요 할 경우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볼때, 경찰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므로 취득주체인 경찰서에서 주관하여

취득하고 군에서는 토지소유자를 설득한 다든가 또는 필요한 부지내에 국·공유지등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용도 폐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경찰서 신축부지 선정의 지원 역할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본의원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매입한다는 것은 조례나 법률상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입교환에 대한 쌍방 기관사이에 합의문이 있는지 , 있다면 합의 주체와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경찰서 부지와 건립예정부지를 교환 할 경우 기존 경찰서 부지의 사용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지매입 조성 과정에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김종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들은 다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8分 停會)

(13時 00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김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한 대화면 이남권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상 봉평 이북지역은 오대산 국립공원, 용평스키장, 이승복기념관, 보광 휘닉스개발사업등 스포츠 및 여가선용등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위락 시설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하여 관광재유치등 발전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대화 이남지역은 군청소재지가 평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 부실과 민간자본 투자 시설 및 기업체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금년 8월경에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교통망만 확충되면 개발가치가 풍부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현재로서는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중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교통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1번 국도는 영동고속도로와 인접되어 있으면서도 노퍽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자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남북간을 연결한 31번국도의 4차선 확장을 위하여 11월 16일 건설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이미 상부에 건의 한바 있으며, 지역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제천~삼척간 산업도로가 개설되고,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충북내륙에 위치한 제천시민과, 단양군등의 주민들은 본 31번 국도를 이용하여 영동고속도로로 진입,오대산, 용평

스키장등 관내 관광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4차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은 도로망의 확충 없이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되기 이전이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한우번식우 단지 조성을 비롯한 무공해 고품질 채소 생산단지, 낙농단지, 중소규모 식품가공공장 건설등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도와의원과의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칠 것입니다.

다음은 우강호 의원과,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정 수요가 무한히 창출될 것이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충방안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군의 예산규모중 20%가 자주재원이며, 80%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등 의전 수입으로 균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 집중식 예산 배분제도인 현행 조세제도하에서 세수증대로 인한 획기적인 자주재원신장률 증가는 기대에 못미치리라 생각되며, 현재 우리군이 추진중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을 보면 국공유 재산중 은닉 또는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을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부당 이익금과 점유 사용료를 징수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각종 도세의 탈로 세원 포착과 지방세의 세수증대 방안 일환으로 내고

장 담배 사 피우기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운행중인 차량중 이전 등록이라든가, 미필자와 주소변경 미필자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를 재정비 하여 자주재원 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으로 민수용 골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사업은 비교적 건설사업 고조로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수입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골재 부존량의 감소와 관광성 지구의 골재채취 허가 억제로 점차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본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관내의 하천부지와 군유지에 대한 일제 측량을 실시하여 은닉 또는 무단점유된 재산을 색출하기 위한 측량 실시 준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자

치시대에 걸맞는 기업개발 기획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개발 구상을 기본으로 하여 주민의 소득도 증대시키며, 지방재정도 확충하는 공익 목적을 실행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선정을 전제로 하여 지역의 천혜적인 관광자원과 특수한 입지여건, 실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 유유분산된 기업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이 유효 효과가 큰 사업, 기존의 민간기업이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사업, 사업의 투자자원확보와 가능한 사업중에서 기추진중인 골재채취사업과 생수개발이라든가, 눈썰매장과 휴게소 운영, 그리고 농축산물 직판장 개설과 농축임산물 가공 공장등이 경영수익 사업을 선정하여 정밀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군이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사업들이 구상

및 사업계획 추진중에 있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지는 시기적으로 보아 단정 지을수는 없지만, 본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자주재원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주적인 숙원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체에 따른 상환과, 계속사업비를 계상하고 남은 예산을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을 시행 할려고 하나, 본군의 재정형편상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자주재원 숙원사업 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군수및 읍면장 재량사업비 일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는 사업이 대규모 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국도비 보조와 교부세 증액 요구등 다각적인 방법과 자국책을 강구하여 숙원사업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

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간 불균형 투자로 인한 다수적인 불이익 시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평창군이 북부권에 해당하는 용평, 봉평 이북지역은 오대산 국립공원, 용평스키장, 이승복 기념관, 보광 종합휴양시설, 효석공원조성등 스포츠 및 여가선용등을 즐길수 있는 각종 위락시설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영도고속도로와 인접하여 관광객 유치등 발전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남북권 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미비하고, 각종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보겠으며, 또한 읍면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및 사업책정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 선정및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와 각종 사업별 특성 및 지역적 여건에 따라 균등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점도 있겠으며, 지역개

발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등을 통해서 낙후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면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및 사업시행시 지역적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불균형 투자가 되지 않도록 위치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종합개발10개년계획수립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평창군의 발전에 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군발전의 골반인 정책목표와 그 실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제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5개년계획 및 도시계획인 강원도 건설종합계획등의 상위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군차원에서 집행계획의 마련을 위해서 19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에 걸치는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계획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 개발목표는 기업간 연계성 강화, 부존자원의 중심의 산업개발 도로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생활환경정비, 문화복지시설개발등 5개항으로 설정하였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수단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진부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군민의 생활권형성을 도모하고, 평창읍은 군 행정을 중심으로 진부면은 산업경제 중심지로 개발하여 양극을 중심축으로 개발하여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둘째, 부존자원 중심의 산업개발을 위한 수단으로는 고냉지채소, 화훼, 약초, 산채등 특산물을 산업자원으로 육성개발하고, 오대산 국립공원과 대관령 하일랜드, 용평리조트를 연계하여 대규모 관광스포츠단지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전력산업 차원에서 육성하며,

관광농원, 민박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관광단지 부족 기능을 보완토록 하며, 셋째, 도로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에는 남북권 도로의 개선을 통해 남북방향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여 군의 결성력을 강화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을 계속추진하며, 군내 지역간의 개발 격차를 해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째, 생활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집단마을 조성, 상하수도, 주택개량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하천개수, 분뇨및 쓰레기 매립장을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다섯째, 문화시설및 복지시설 개발에 대하여는 종합문화회관, 복지회관, 문화체육 공원등 도시에 비하여 격차가 심한 부분의 개발투자를 우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 하도록 기본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별 개발계획을 살펴 보면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평창권, 대화권, 진부권등 3개소 단위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진부 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부를 새로운 공원으로시로 개발하



여 동계관광스포츠단지 서비스기능도시로 육성하고, 오대산 국립공원, 대관령 하일랜드, 용평리조트를 연계 개발하여 관광사업을 평창군이 전략사업을 육성하는 요충지 기능을 부여하며, 기존 철도와 연결, 통행 기능이 쇠퇴해 가는 산업철도를 관광철도로 전환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기반강화와 함께,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판매장, 민속음식단지조성과 약초가공공장건설등을 통한 부존자원의 입지 여건을 산업화로 연계하여 개발토록하고, 진부의 전통음식단지와 대규모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여 평창군농산물 유통을 중심으로 개발하며, 각종 시책및 사업을 추진시에는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이에 부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빈약한 자체 자원으로는 계획된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연계성을 갖고, 민자 유치등

평창군 개발을 위하여 은정성을 다 할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고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투자로 인한 다수적 불이익 시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대단위 발주 사업들, 이미 시행했던 종합운동장이나, 보건의료원, 지금 시행중인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런것들이 평창군민의 전체적인 수혜차원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업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었던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위치 선정시 전체 군민의 수혜차원을 제고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다수적인 불이익을 제가 물

어 봤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 企劃室長 申大松 :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사업이라든가, 현재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위치선정에 관한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평창군의 중심지인 용평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곳에 하는것이 편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군청소재지가 평창읍에 소재하고 있고, 앞으로 이용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이용방법만 모색이 된다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을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어느 읍면에 위치를 했을때에 과연 그 위치에서 타읍면에 계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문제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 생각과 견해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각읍면별로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군청소재지라고 하여 한쪽 기통이 와 있는 평창읍에 집중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강구한다 해도 도암이나, 진부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렇게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도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어디 있던 간에 나중에 다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만 강구된다면, 위치에 국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같은것도 완공되면, 어저께 공보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문제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평창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노성계 행사라든가, 각종 군단위 큰 행사를

이곳에서 하는데, 다른 면 중심부에 있다 하면, 또한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점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평창군 중심부에 있으면 그러한 문제가 더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제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禹康鎬 議員 : 보건의료원에 대하여도 그런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보건의료원이나, 종합운동장은 평창군민이 모두 사용하는 이용도 하고, 평창읍 전체에서 사용하는 이용도 하고, 어느곳이 더 많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정확히 따져 보지 않았습시다마는, 그래서 군에서도 보건지소의 활성화, 그리고, 현대화를 통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현재 의료원 단계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여 의료원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상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기획실장님께서 자주 재원 확보차원에서 지역개발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읍면에는 개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청에도 타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개발위원회와 지역개발기획단의 차이점과 타 단체의 지금까지 운영 실태의 문제점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기획단이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단은 슬어 자체는 거창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획단의 예를 들면, 일단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체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과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포함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구성된다 고 하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사실상 본연의 의무를 완수할 수있는 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慶鎭 議員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단체가 실질적으로 만들때와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길래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안계시면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문화공보실장 고창식입니다.

우선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광의 관광단지에 대하여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광지의 관광단지, 관광사업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항

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하면 우선 관광진흥법에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나 하면, 관광객 이용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보광이라든과, 용평, 성우동이 관광전문휴양업에 속하는 이용시설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나 하면, 분류하여 관광지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단지 이 세가지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는데,

관광지라고 하는것은 협의적인 개념입니다.

규모라든가, 시설, 여러가지면에서 작은 것이고, 관광단지는 여러가지 일을 복합한 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는 지금현재 강현, 화암약수, 증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는 강원도내에 월성관광단지라고, 원주 한솔제지가 운영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라고 하는것은 일단 관광단지 신청은 이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가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주) 보광 휘닉스리조트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관광단지 지정의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관광단지로 지정할 경우 세제 혜택, 국고보조 등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본 사업은 초기단계에서 부터 검토되어 거론됐어야 한다고 사료합니다.

그리고 기존 관광단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7개소의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주의 월성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1개소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관광단지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 중심, 즉, 경주 보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심의 관광단지이고, 원주의 월성관광단지 같은 경

우는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보광 휘닉스 같은 경우는 문화중심의 관광단지로 접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에 7개소의 관광단지가 대다수 (주)보광 휘닉스 파크 면적보다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주변 관광자원과 접목되어 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나, 문화체육부에서 재 분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거점기능 관광단지로서의 개발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보광 휘닉스에서 문화를 관광과 접목시키는 관광단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는 우선 이효석과 관련된 생가 복원, 그리고 효석문학관 건립, 메밀꽃단지 조성, 주변 농촌마을의 한옥화동 효석문화마을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겠으

며,  
둘째, 봉평에서 개최되는 효석백일장은 전국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휘닉스파크 리조트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관광농원사업, 또는 농촌 휴양단지 사업등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흥정계곡의 공원화등 보광 휘닉스파크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다양한 관광시설을 개발하는등 주변관광기능 보완함으로서 중심적 관광단지로서의 기능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이에 따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여러분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보존에 관한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해야 하느냐, 보존을 해야 하느냐, 이문제는 이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한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무작정 개발을 해서도 안되겠고, 무작정 보존을 해서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론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19.2%가 자주재원이고, 그중에서 80.8%가 의존수입임을 감안 할때에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군전체 면적의 84.4%가 임야로 형성된 입지 여건에서 1차산업인 농업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고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고장의 국토를 평정지역으로 잘 보존했을 경우에 지방자치전면 실시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과, 기준에 못미치는 재정력등 이러한 사회병리 현실에서 의회나 집행기관 그리고 군

민이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대다수 시민들이 자주재원을 높이기 위한 지역개발, 즉 관광개발을 위해 앞을 다투어서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개발의 의무는 군 전체를 훼손해서 개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발하여 인구도 늘리고 자주재원도 늘려가자는 뜻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특수한 지역 여건을 감안 할때, 이미 타군에서 시도하지 못한 평창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이를 보완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개발과 보존의 형평이 잘 이루어 지는 관광 개발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보존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평창군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역시 한정된 시간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개발입지 여건은 그 어느 시군보다도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형이 84.4%가 산으로 형성되어 맑은 공기, 맑은 물이 풍부하고, 산간고냉지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다양한 기후 풍토를 가지고 있어서 계절권 관광상품을 개발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월등한 곳이라 하겠으며, 특히, 눈은 우리군을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구성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창군의 관광개발 실태를 보면 동서를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암, 진부, 봉평, 4개 지역은 기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곳, 기업이 참여 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장평과 제천을 연결하는 31번 국도측에 위치한

대화, 방림, 평창, 미탄 지역은 개발이 둔화 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창군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31번국도의 이용거리를 단축 시켜야만, 개발의 불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근간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농어촌정비법이 마련되어 이와 접목해서 관광 농원사업과, 농어촌휴양단지 사업, 주말 농원 사업, 농어촌민박사업도 적극 권장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평창군의 미래 지향적인 관광개발 구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평창군종합개발계획과, 평창군관광종합개발계획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백덕산지구는 등산로라든가 피크닉장, 소규모 스키장, 주말농장등 그리고 횡계지구는 동계스포츠 스키장, 그리고 근교 유원지로 활용한 관광지, 주말농장, 그리고 차항지구는 소규모 스키장, 근교 유원지로 활용한 관광개발

그리고 대관령 지구는 스키 골프장, 용산 지구는 간이 스키장 및 숙박시설, 그리고 의야지 지구는 임업관련 시설 연수원 등, 그리고, 면은지구는 종합 휴양업, 그리고 레저단지개발사업, 유포지역은 피크닉장 또는 종합휴양지, 남산지구는 자전차 하이킹 코스라든가, 체육관련 시설, 기타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옥산 지구는 휴양시설, 민속촌 고냉지채소단지, 관광농원등을 들수 있고, 수하리 댐은 수상 유원지등 관광농원을 들수 있겠으며, 수향계곡은 계곡 유원지, 너운계곡은 관광농원계곡유원지 금당계곡은 군립공원, 그리고 노성산 지구는 그린공원을 통한 어떤 시설, 그리고 등산로, 이효석생가등은 문화마을 조성, 이러한 여러가지 계획이 이미 입안된바 있습니다.

이상 우강호 의원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또 한가지는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자의 상품화 방안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에서는 군단위 행사인 노성



제를 비롯하여, 읍면단위 각종 행사들이 다양하게 치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행사들이 그렇듯이 행사의 목적이 주로 주민 화합차원인 소모성 행사에 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행사 참여 주체들이 적극성 또한 결여 되어 있다고 봐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기왕의 행사를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 시키고, 전체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면 특히 지역의 특산품등을 소개하는 이벤트 축제 행사로 개발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 관내에서 개최된 이벤트 행사로서는 대관령 눈꽃축제와 봉평의 한마당 어울림 축제가 있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는 '93년 제1회 행사를 개최한 이래 금년까지 3회를 치르게 되었지만, '94, '95 행사를 계기로 명실공히 전국단위 이벤트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봉평의 한마당 어울잔지는 지역 자연 자원을 주민화합과 소득을 연결시

키려는 시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여러가지 이벤트 행사가 치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읍면별로 어떠한 이벤트행사를 하나씩 발굴해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답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96년도에는 전통문화행사가 빈약하다고 보는 진부면 지역에 특산품인 감자를 소재로 축제행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고냉지 감자의 유명성도 높이고, 그리고 감자의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관광 이벤트로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축제들이 단시일내에 개발되고 정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의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병행된다면 감자축제가 새로운 지역축제행사로 자리를 잡아 가리라고 봅니다.

현재 감자 축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감자축제가 열리고 있는 독일 중부지역인 코브렌트 지역과 비스바덴 지역에 팩스와 서신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락을 했습니다.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우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발왕산 개발에 대한 군의 추진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왕산 개발은 '97년 월드컵스키대회 그리고 '99동계아시안게임을 대비를 위한 시설확충과, 세계수준의 종합 휴양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의 시행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왕산개발을 위한 현재 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7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제697호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시작으로 '88년 발왕산 골드 슬로프를 조성하

고, 콘도미니엄을 중축하였으며, '90년 발왕산 정상 개발을 위한 차도슬로프 개설등 '97, '99대회 준비를 위한 준비 단계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93년 12월 '99동계 아시안게임개최 확정 및 '97 월드컵 스키대회 OCA 총회 내각으로 본격적인 발왕산 개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94년 1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환경보존계획 제출등 발왕산개발사업 승인을 얻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하였으나, '94년 12월 정상 스키장 지역을 제외한 숙박 기타 시설에 대해서만 협의되고, 정상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사업착수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계로 '95 10월 국회 국정감사시 우리지역의 출신이신, 김기수 의원께서 반대 사유 추궁 및 협의를 촉구한바 있으며, '95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이 양양, 속초 방문시에 발왕산 보존과 대회 개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

을 한바 있습니다.

'95년 11월 15일 환경부 자연생태과장 외 6명이 발왕산 현지답사를 또한 실시 한바 있습니다.

이는 우선 국가적인 차원으로 국가가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상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점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발왕산 개발의 필요성을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며,

둘째, 개발노력이 업체와 행정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에 발왕산 개발 자체가 순전히 업체의 영업목적만으로 위한 것처럼 외부에 비추어 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봅니다.

따라서 '97, '99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발왕산 개발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리라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민간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강력한 의지

를 환경청을 위시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공보실장님의 전반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단지 지정시 봉평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평면민들이 시가지 전체를 포함해서 단지화를 원하는지, 시가지를 빼고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가능한 쪽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구요.

세제 혜택에 대하여 답변하셨는데, 50%정도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지방세?

○ 文化公報室長 高稔植 : 예, 그렇습니

다.

○ 禹康鎬 議員 : 50%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환원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겠다고 저희 의회에서 '95년도 하반기 사업장 현지확인시 보광의 임원께서 확실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지정이 될 수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관광단지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평창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을 홍보하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稔植 :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내무과장 이영덕입니다.

김두경, 우강호 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실명제와 정책실명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실명제는 행정주제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규정한 핵심적인 민원처리 절차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질높은 대민행정 실현을 위하여 행정 실명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리 담당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나,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사유의 통지등을 할때에는 공문서의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소속 , 성명,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문서 발송시 처리담당자를 명

기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분야에서는 인·허가 민원과, 전정건의등 고충 민원등에 명기하며, 세무분야에서는 지방세 납세 고지서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징금, 과태료등 납부 고지서에 예시 하므로서 민원접수시 부터 종료시까지 모든 민원을 책임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담당부서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등을 기재한 고무인을 날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지방재정의 확충 내지 예산절감을 위해 그동안 실시해오던 제안 모집을 금년부터 군자체서 활성화 하여 공직내부의 창의적인 의견과 실행 가

능한 시책을 연중 발굴하고 있으며, 제출된 제안은 군정조정인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채택한후 표창이나, 특전등을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제작 영구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는 본 제안모집을 군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제안모집 공고에서 부터 채택결과까지, 내고장 소식지에 게재, 주민들의 다소 동참은 물론 제안 결과에 대한 처리 및 수용 결과를 다 알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표창이나 특전부여와 함께 채택된 제안이 군정 반영에 추진될 때에는 발간지나 내고장 소식지에 언제, 누가 제안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전국민에게 실명으로 소개하므로써 군정에 이바지하였다는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제안모집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52건이 접수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중 우수제안 7건, 즉, 특별상 1건 우량상 3건, 장려상 3건을 선별하여

표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제안제도는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열린 행정의 지표로 할 예정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의견 주시면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두경의원님의 행정실명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증원과 기구의 신설이 수반되지 않는 직제개편 권한이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이 일부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개편을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중 도와 춘천시등은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조직개편의 필요한 용역을 발주 그 결과에 따라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하며,

일부 개편을 완료한 정선, 영월, 횡성군 등은 과단위 개편없이 일부 계의 개편만 완료하고, '96년도 초에는 과에 대한 개편을 시작할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감축개념이 아닌 기구와 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저희군은 인사부서 자체 개편안을 '95년초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본골격을 검토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산하 7급이상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신설및 폐지가 필요한 비중을 검토한 결과, 세무부서와 관광부서에 대한 보강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조정위의 검토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개편될 계획인 부서는 신설 보강인 경우는 내무부에서 승인한 재난관리계와 자체 조직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주재원의 확충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구를 보강하고,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며, 기능이 쇠퇴한 일부 기구는 축소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며, 도의 개편결과를 보아 가며 우리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구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력강화와 일선행정의 기능강화 방안은 조직개편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종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본청의 경우 그동안 지적계가 민원실을 대표하여 왔습니다마는 '96년도 민원실이 신축되면, 주민편의가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각 실과의 민원부서 직원이 모두 근무하는 종합민원실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내부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축소 조정하여 기능이 확대된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의 낭비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중입니다.

물론 정원의 순수한 증원과 일부조직의 개편권이 아직 내무부에 있어 계획은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읍면에

설치될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시설의 인력과 상수도관련 기능인력에 관해서는 상급부서와 합의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충, 일선 읍면을 기능 위주로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직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력의 증원 승인이 되지 않아 기능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대다수 업무가 읍면이 아닌 군 본청에서 결정되므로 군의 인력을 삭감하여 읍면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은 저회와 비슷한 영월 및 정선보다 50명서 108명이 적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통해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가 통합될 계획인 진부의 월정 상수도의 기능 인력을 상수도 누수 탐사및 보수 기능으로 개편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이 없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48分 停會)

(14時 00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사회진흥과장 송재명입니다.

김두경의원께서 질문하신 봉평면 도읍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지연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재정의 형편상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93년부터 시작된 본사업은 총 사업비가 42억 2,800만원으로 '93년에 10억 2,100만원, '94년 14억4,100만원, 금년에 12억 1,300만원등 총 36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앞으로 5억5,3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96년 당초예산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지연입니다.

총 보상협의 대상 토지는 77명 소유분 155필지에 14,930㎡로 현재까지 68명소유분 14,930㎡로 현재까지 68명소유분 143필지 14,331㎡가 합의가 되고, 9명의 소유분 12필지 599㎡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 토지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주유소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 절차 이행중이 1명, 상속등기 이행중이 1명, 상업지역 요구 1명, 도로부지 불하요구 2명, 지적경계 정정



중이 1명이고, 외지 거주가 3명등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 이행은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외주 거주  
자에 대하여 직접 출장 방문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철거대상 건물 총 58동중 지금까지 40동  
은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18동은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거되지 아니한 16동의 내역은 지난  
10월 29일 택지분양된 11명중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은자가 7명이고, 토지보상  
협의불응자가 4명입니다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거나 내년초 건물신축계획인자  
가 7명으로 내년 5월까지는 모두 철거  
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지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대  
책은 상수도수원지에서 중학교앞까지 임  
시 우회도로를 개설한 후에 시설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도읍정비 마무리에 대한 대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상협의 지연으로 중지되었던

시설공사는 지난 10월 1일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10월 5일 공사를 재착공 하였  
으며, 지금까지의 공정은 40%입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계속 시공토록 하고 겨울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인도블럭 설치와  
포장등은 내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상반기  
이전에 봉평도읍정비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  
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議員 : 철거보상비를 수령하  
고 아직까지 미철거한 행정적 조치계획  
이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지금 철거되  
지 않은 농가가 대부분보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달에 택지분양을 해  
주었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내년 5월 이  
전에 건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공사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 金斗經 議員 : 택지분양 받은 농가의 예 보상비를 받고 아직 철거안한 농가가 있습니다. 부분 철거아닙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상회, 우리약국 같은것이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보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구간은 일단 저희들이 동절기이기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 봄에 철거하는걸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가지고 지금 협의가 더욱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을 해가지고 철거토록 해주실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지분양 선정한 농가 12동에 대해서요. 그것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착수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斗經 議員 : 그 다음에 그 재계약은 하셨나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했습니다. 재계약해 가지고 10월 5일날 재착공을 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시공업자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공사비는 재착공을 하고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 김두경 의원 : 전에것은 지급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전의 것은 당초에 지금 공사비가 나간것은 없고, 관급자재대만 나간것이 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과장님께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부임하시고 현지에 몇번이나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정확한 횟수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1주일에 서너번 갈때도 있고, 못나갈때는 1주일에 한번, 두번 나갑니다.

○ 金斗經 議員 : 앞으로는 자주 출장 좀 오셔가지고 추진위원들과 협의 하셔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적인 현황 파악 때문에 시간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월에 이월을 거듭하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이수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총42억5,000만원 예산중에서 말이죠, 36억은 확보 되었으나 5억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 42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입니다. 아니면 물가상승율을 적용한 예산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물가상승율을 적용했습니다.

○ 李洙現 議員 : 적용한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 金斗經 議員 :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가지고 수령한 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금년도에는 되는데 봉평같은 경우에는 도시시설 결정을 93년도에 한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면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제가 알기로는 감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상비를 받아.....,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현재는 안되는데,

○ 金斗經 議員 : 30% ~40%의 양도소득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 하는 말씀이 당초에 피알을 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면 계획을 하여 사전에 세무소에 가서 협의를 할텐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저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돈을 받아 다 썼는데, 지금 물어 벌려고 하니까, 생돈갖고 할

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저희들 부서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우회도로 문제를 내년도에 시가지 혼잡성을 제고하여 우회도로가 제방으로 가능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예, 가능합니다.

○ 金斗經 議員 : 제방에는 도로가 안되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제방도로를 우회도로로 지정을 하면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유돈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劉燉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봉평면 도움정비가 3년에 걸쳐 미완공에 걸쳐 지금에 이르러 있습니다.

주민의 미보상 땅값 상승과 공사 미발주로 인한 자재값 상승과, 물가상승에 대한 내년도 균예산의 추가 부담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사업 승인 인가를 받을때 43억9,3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 40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2년동안 중지명령을 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변경설계를 하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설계 차액이 약 1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외에 보상이 같은 것은 현재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劉燉文 議員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보상받지 않은 분은 지금 보광도 들어 오고 해서 3년전의 보상가로는

전혀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군으로서는 그해결을 전부다 했는지, 그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를 불응한 사람은 감정을 안하셨다가,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가서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劉燉文 議員 :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보상가를 전액 받고, 철거를 안한 주민도 지금 현재 보상가격에 준해서 주는 사람도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 요구를 더하고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군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지금 보상가를 받고서 철거를 안한 사람들은 어떤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서 철거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람들이 집을 질수 없는 이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철거를 안하는 것이지, 이사람들이 어떤 보상가를 오르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철거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 劉燉文 議員 :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도 계십니까?

( 아무소리가 없음 )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평창경찰서부지 매입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평창경찰서 부지를 평창군이 매입하게 된 이유는 경찰서 현재 부지가 1,444평 그자리에 경찰서를 헐고 다시 그자리에 신축하기는 사실상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서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토지매입 업무가 추진되지 않으면, 공공청사인 경찰서 신축은 중앙에서 예산을 만약 준다고 하더라도 신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94년 11월 지역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 해결을 위해서 평창경찰서 부지를 평창군이 확보 하여 제공 하고, 대신 현재 평창경찰서가 쓰고 있는 부지와 교환 한다는 조건으로 군청 정문밖 오른 편에 4,467평의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키로 하고 금년도 평창군 당초예산에 4억 8,0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 2,000만원등 , 총 5억원의 토지매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5일자로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시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95년 7월28일 강원도로 부터 기존의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에서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받고 해서 토지매입업무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8월 11일 평창경찰서 신축부지에 대한 감정 결과 총 8억 2,639만 9천원으로

로 사정을 했고, 현재 8필지의 2,946평은 등기를 이전하고, 토지대금 5억4,558만1천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입니다.

4필지 825평은 현재 등기이전 절차를 받고 있고, 3필지 696평은 지주 2명이 아직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관계로 계속 매입 협의중입니다.

경찰서 부지를 평창군이 매입하게 된대 대해서는 군이 직접 필요로 하지는 않지 마는 '95년 5월 15일자로 평창군공유재산계획1차변경 심의시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약 9억원의 군비를 들여 경찰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재산 환가액으로 22억 원에 해당하는 현재의 경찰서부지와 교환할 경우에 13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교환을 하면 공유재산정식과, 영소득사업차원에서 필요 하였고,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현 경찰서 부지가 시내의 중심지 요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가지의 그린 점을 감안하여 시가지의 토지 매입이 극히 어려운 최근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평창군이 이런 토지를 확보하여 앞으로 주차장이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이용면에서 크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교환에 관한 쌍방 합의는 우리군이 지난 10월 5일 경찰서부지 상호 교환을 위한 재산의 목록, 시기, 방법 조건등에 대해서 경찰서에 대책을 요구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12일자로 평창경찰서는 금년 11월중에 강원도경찰청에 관리계획을 보고하고, '96년도 4월에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

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우선 미해결된 부지를 조속히 해결하고, 평창군으로 등기를 이전한 후에 '96년 연말이나, 늦어도 '97년 초 이전까지는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고, 부지활용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부지 활용 대책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대상

부지내에 소유자가 아직까지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지만, 군이 대토등을 우선하는 관계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운 :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사회과장 김영주입니다.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의 구분별 확장 및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신장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면, 전면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군민들의 복지정책을 갈구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장애인 복지, 부랑인 선도시설, 사회복지관,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이 있으나, 본군에는 다른 복지시설이 없고,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로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평창군 분관이 있으나, 이 건물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 건물로 사용하다 '93년도에 평창군수께 조건부로 양도한 것을 장애인복지회관 보관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강원도를 예를 들면, 춘천, 원주, 강릉 3개시를 제외한 타시군은 거의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장애인 복지관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 뿐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불우아동의 자립과, 장애인의 자활과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장애인 복지관, 농산물 유통사업, 교육훈련시설, 도서실, 상담실을 갖춘 농촌형 사회복지관을 2,000년도까지 건립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놓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규모는 대지면적이 300평,

연건평 161평으로 건물 투자액은 4억 1,500만원로서 국비 3억 3,300만원, 도비 4,100만원, 군비 4,1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콘크리트로 건립할 계획이며, 부지까지 합쳐서 7,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의 심신건강유지 및 노인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관내의 65세 이상의 노인 4,600명에 대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업비 10억 8,900만원을 국비 10억 8,900만원, 군비 500만원을 투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장애인 인구나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신축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대책과, 자립의지 해소 방안과 장애인단체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30일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을 총 517명으로 지체가 356명, 시각이 36명, 청각언어가 69명, 정신박약 55명이며,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며 18세



이하 37명, 18세 ~ 40세가 192명, 40세~ 60세가 201명, 60세 이상이 87명이며, 직업별로 분류하면, 농업이 187명, 상업이 18명, 기업체 24명, 학생 19명, 무직이 269명으로서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보다 많은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장애인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장애인 복지대책으로 등록 장애인중 저소득장애인 174명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 하고 있으며, 110명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로 매월 생계비 월 1인당 12만6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110명에 대해서 1억9,315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64명에 대해서는 취로사업 의료비등을 지원하며, 위의 장애인에 대하여 보장구를 6명에 대하여 120만원을, 장애인 등록 진단비 16명에 대하여 32만9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4명에 대하여 169만4천원, 중복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20명에 대하여 96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

며, 여가와 스포츠활동을 통한 다른사람들과의 만남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의날 4월20일에 200만원과 장애인 물리치료기 구입비, 21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 직원 4명이 주 3일간 복지관 방문자 1일 평균 8~9명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주며, 주 2일은 가정방문으로 장애인들과 상담을 실시하며, 매월 첫주 목요일에는 원주 기독병원, 춘천 재활의학과 의사 3~4명이 내원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진단과 치료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더많은 지원이 되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립해소를 위해서는 소비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기술을 습득급료를 타므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2,000년도까지 농촌형 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 모든 장애인이 참여하여 근로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 직종을 선택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내 농공단지와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체휴와 제품의 안정적 조달과 판매등으로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 지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보조하며, 시책별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 입니다.

장애자 복지대책과 자립의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최고 등급별 장애인들의 사업비, 생계유지비를 포함한 그런 내용말고 실질적으로 상업을 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 현황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할때 주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복지관은 선명회에서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체장애자 협회가 정액지원단체가 아니더라도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체장애자협회는 사단법인 등록단체입니다.

앞으로 주 협의를 거쳐서 정액단체로서 충분한 협조와 배려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비는 등급별로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은 우리가 물론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하지만, 그것 말고,용자를 1인당 8백만원씩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에 대한 혜택은 저희들이

장애자 등록을 하신분들은 자동차를 구입할때, 공채를 안붙이도록 하고, 1급~ 3급 장애자에게는 자동차세를 면제 합니다.

그것은 보철용으로 이용한다는 뜻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도 정액보조단체가 되도록 저희들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되어야만 되기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지저를 포함한 모든분들이 장애자가 아니라고 감히 발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신 장애자가 아닌, 정신적인 장애자들입니다.

소외 받지 않도록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장구를 지급할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자협회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金榮柱 : 보장구를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장애인 집으로요.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 禹康鎬 議員 : 네, 알겠습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사회과장이 직접 가서 방문하거나, 아니면 실지 군수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군수님이 직접방문해서 전달할때도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이동사항이나, 모든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재정적 지원을 가능한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더 안계시면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환경보호과장이정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김두경 의원과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두경의원께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특정폐기물처리실태에 관련해서 대형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 실태와 대책, 그리고, 대형공사장에서 발생된 특정폐기물의 투기 단속 실적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끝으로 봉평쓰레기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형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건설폐기물처리 실태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건설관련 폐기물중 주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전 신고를 거쳐, 최종처리까지 적정 처리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신고된 건설관련 폐기물은

총 16건의 지도점검을 '94년부터 지금까지 4회 실시하여 적정처리 여부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왔으며,

현재 건설폐기물은 위탁처리 2건, 재활용 14건으로 신고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공사관련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폐기물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강원도내에 최종처리할 수 있는 매립시설은 전무하고, 중간처리 할 수 있는 시설만 춘천시에 2개시설이 있을뿐입니다.

정부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94년 1월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지침을 마련한바, 우리군도 건설폐기물 대부분을 상기 지침에 맞게 재활용하도록, 대상지를 알선하는등의 방법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처리 할수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한 현재로서는 처리시 불편이 있더라도, 재활용하는 방법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향후 재활용을 유도하여

건설폐기물의 양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의 투기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정된 폐산의 17종의 유해물질로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사업등에서 자가처리하거나, 자가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소각, 파쇄, 매립방법등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특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갈수기 장마철등 투기 우려가 높은 취약기간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중 특정폐기물 투기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시 특별정기단속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일소토록 노력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있는 대형건설 공사장과 업체에 대하여 홍보물을 배포하는등 사

전 계도하여 투기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애로 사항으로 군관내 특정폐기물처리 업소가 없다는 것과, 투기단속 처리건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되어 있지 않고, 국가기관이 원주지방환경청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봉평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평면 매립장은 1997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순매립방식의 현 매립방식을 개선하여 위생매립시설로 신규 건설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95년 10월 31일 용인군 위생매립시설, 용인자연농원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견학을 실시 하였습니다.

'95년 11월 5일 주민회의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봉평면 매립장 건설을 위하여는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매립장 건설 설비는 30억 정도의 재원은 준비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지역에 유치한 민간기업의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적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위 지역여건이나, 재원규모 및 설명회를 통하여 하겠으며, 지원협의체는 당위 시설입지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봉평위생쓰레기매립장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후보지역은 봉평면 평촌2리 산140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으며, 면적은 52,7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30,000㎡로 계획하고 있고, 매립 방법은 소각후 준호기성 위생매립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방법은 평창군과 민간업체가 공동추진

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대략 3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두경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우강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께서는 관광시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중 나항으로 맑은물 보존시책추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맑은물 보존시책추진 및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맑은물 보존시책 및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맑은물은 우리군의 핵심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94년부터 맑은물보존시책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추진 성과와, '96년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추진성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강원도 맑은물보존시책에 연계해 관내17개 하천에 대한 오염물을 분석 이에 대

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총 26개 단위 사업을 부서별로 '94년 총74억 5,9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오수처리시설, 하수도 정비사업, 농촌쓰레기처리대책, 농어촌변소개량사업, 축산폐수처리대책, 음식점오수정화사업등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9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66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비 16억 8,400만원, 도비 14억6,200만원, 군비 34억 900만원, 기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14개 사업을 추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오수는 농촌오수처리장에 3개사업, 분뇨폐기물은 청소수거정비사업,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간이정화시설 보급에 2개사업, 그리고 하천정화를 위하여 맑은물 공급에 3

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95추진사업종합평가후 미흡한 부분은 '96년도는 종합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의 부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해야할 형편이므로, 국도비 보조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맑은물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농촌오수처리장은 당초 진부면 지역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봉평면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강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議員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보광 휘닉스파크 개발현장에서 발

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봉평면쓰레기장으로 유입이 되고 매립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루 나오는 폐기물 1일 량을 알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그양은 매일 나오는 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金斗經 議員 : 그양이 다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몇일전 봉평면 보광에서 쓰레기장에 매립한 문제 때문에 고소 고발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네, 알고 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그문제는 봉평면 번영회장이 평창경찰서와 원주 환경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경찰서에서 봉평면 관계 복지계장과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주 환경청에 보낸 고발장은 오늘 아침

에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일반 폐기물로 판명되었으니까, 적의 처리하도록 저희 군에 이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를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보광에서 갖다 버린 것이 유리 섬유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유리섬유라고.....,

○ 金斗經 議員 : 그것은 분류해서 수거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그것은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서 일반매립장에 투기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보광에서 하루 1일량이 얼마나 되는냐, 그래서 폐기물 다량 배출에 대한 제한량이 있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다른 배출에 대한 제한량은.....,



○ 金斗經 議員 : 300g 이상, 1t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에 대형공사장에서 하루에 수십t 씩 갖다 버리는데, 그것을 제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는 겁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대형공사장에서 쓰레기를 몇 톤이상 나오면 안된다는 제한은 없는것 같습니다.

○ 金斗經 議員 : 특정폐기물처리장을 앞으로 본군에서도 장소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특정폐기물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가 위임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정폐기물처리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 金斗經 議員 :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덩이가 다량으로 배출이 되어 쓰레기장에 유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잘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우강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 및 시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오대천이나, 홍정천, 평창강등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너나 할것 없이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보광이라든가, 오대천 상수원지역에는 오대산관광호텔, 또 오대산 연수원, 모든 대형 업체들이 오 폐수시설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상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물로 인한 피

해가 없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저희지역에 있는 진부지역에 오대산관광호텔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오·폐수 정화시설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 의원들 현지확인시 보셨겠지만, 상수원에 바로 인접해 있는 평창연립, 정화조탱크 밑에 있는 파이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아직 못봤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저희 의원들 현지확인시 정화조 바로 밑에 있는 탱크에 스텐레스 파이프가 묻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장마시에는 뚜껑만 열면 바로 분뇨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차후 준공검사시 참고로 하시고, 가장 맑은물을 상수원에 보낼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대산 관광호텔과, 평창연립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 처리계획 답변을 상세

히 읽어 봤는데, 좀더 정확하고, 확실한 통제라든가, 아니면, 확인, 점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지저분한 물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특히 지금부터는 갈수기입니다.

갈수기에 자연정화구역의 거리가 2km라고 그러는데, 갈수기하고, 갈수아닐때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겁니다.

그 많은 시설들에서 많은 인원들이 오수나,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아무리 깨끗한 상수원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해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도 계십니까?

( 아무소리가 없음 )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15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9分 停會)

(15時 00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정회전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朴靜子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입니다.

김중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조성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95년 5월 3일 공포하였고, '95년 7월에 각급기관단체 287개소에 의견수렴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조성에 동참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0%만 호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월달에 군민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및 방문 의견수렴중입니다.

11월 말일이 되면 집계가 나올것으로 알지만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자체 출연금 또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96년부터 5년간 군자체 출연금 2억 5,000만원, 모금 2억 5,000만원등 2,000년까지 5억을 조성하여 예상되는 수익금 1억2,000만원으로 조례 제6조 기금의 사용목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내에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모금사용 및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하겠으며, '96년도에는 기금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산업과장 김시한 입니다.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당 연간 소득 및 부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

리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및 부채현황은 우리군에서 조사한 자료가 없으므로 농수산통계사무소 평창 출장소와, 농협, 축협의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조사는 농수산부에서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전국의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에 314개 조사구에서 3,140농가를 표본조사대상으로 농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표본농가는 평창, 미탄, 대화면에서 10농가씩 30농가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말 조사한 평균 소득은 1,694만 9천원으로써 강원도 평균소득 1,920만 2천원 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는 진부, 도암동 군내에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지역이 배제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전체 실제 농가소득은 약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부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10월말 현재 농협대출액 800억과 축협대출액 267억등 총 1,067억원으로서 농가 호당 평균 1,432만 2천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 평균 부채액 9,925만원보다 507만 2천원이 높은 수준이나, 대부분이 저금리 장기성 정책대출액으로서 영농을 위한 생산성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 부족예산액 정부예산은 '98년부터 투자를 하는 한편, '95년부터 10년간 15조원의 농어촌발전특별세 재원을 농어어촌에 집중투자하는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구조개선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통구조개선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통시설을 이용하여 유통단계를 점차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유통시설을 청과물 유통센터 1개소, 저온저장고 1개소, 포장센터 3개

소, 농산물 간이집하장 38개소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세척, 선별, 포장 저장하여, 대도시 소비처인 농협, 원협 축협, 공판장 및 백화점, 직판장, 아파트단지 슈퍼에 직접 출하 체계로 유통 단계를 점차 축소 하므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유농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냉지채소 조성단지로서 주로 고냉지 채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냉지채소는 과잉생산, 가격 폭락등을 대비하여 농수산부에서 매년 12월경 농업감축예고제와 연중 시기별로 농업감축예고를 실시하여 적정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농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하여 가격정보 및 농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냉지채소는 현재 9단계 분산파종으로 출하를 조절하므로써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으로 투기 방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고냉지 농업의 방향은 무,배추

대면적 특유영농을 자재하고 적정면적 정착화를 통하여 생산자 조직간의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재배면적 및 물량 조절로 특유영농을 방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책에 대해서 제가 중간상인 등록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지 농민들은 중간상인 등록되어 있는 상인들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중간상인들이 밭떼기로 산다든가 그런 일로 인하여 농사를 지으면, 초기에 밭에도 들어와 보고, 농민들하고도 접촉이 원활하였는데, 중간상인 등록을 하고 부터는 그러한 일이 흔치 않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간상인 등록제

보다는 유통구조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 상태인 중간상인들이 농민들과 연계하여 살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실지 중간상인들 몇명이 등록된 상인인 단합을 한다면, 그것도 걸잡을 수 없는 농민의 피해로 돌아 갈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중간상인 등록제는 지난 '95년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50일간 등록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평창군민이 약2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외지인 200명이 등록되어 평창에 400여명이 작년엔 수집상을 했습니다.

도매시장 거래를 금지 하였으나, 산지 수집상들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 하는 농산물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산발적인 수집상이 수집을 하면 농민과 거래처와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관계로 농수산부에서 농한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차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배추값이 한창 비쌀때, 배추 한차에 1,500만원이 상회하는 가격으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된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産業課長 金時漢 : 예,

○ 禹康鎬 議員 : 그분이 상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농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상인이죠.

○ 禹康鎬 議員 : 그분은 농사도 지으면서 실지 장사를 주업으로 하는 상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시장에서 각점포마다, 상인들이 말하는 자기가 속해 있는 상회마다 물량 수급을 위해서 한대 정도가격을 2대나 3대분의 가격을 차당 1,500만

원으로 구입을 하게되면, 나머지 2~3일 정도 구입하는 가격은 몇백만원에 구입을 해도 실지 소비자가 사먹는 가격은 1,500만원정도 상회가격으로 배추를 사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그들의 폭리를 위해서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 수집상 등록제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오는 피해 부분이 그런 쪽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운동기간을 통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수집상 제도가 없어지는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참고 하시어, 건의할 통로가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예
- 議長 金樂雲 :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축산과장 정의수입니다.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진흥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물의 정기수급대책에 대하여는 정부의 종합축산물의 수급대책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육류총소비량은 1,087t, 국민1인당 24.7kg으로써 1985년도 대비 연평균 7.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UR협상결과에 따라 쇠고기는 2001년부터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하여 기간중 매년 수입쿼타의 증가 관세및 부과금에 의한 국내 보호수준의 점진적 하향조정으로 수입육 가격및 국내 소값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주어진 기간동안, 한우고기의 품질을 높여 수입고기와 다른 수요층을 만들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년기법 도입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판단되며,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97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행 양허관세를 각각 34.4%와 30.5%로 인상후 수입 자유화 하도록 되어 있어 관세율 인상, 생산비 절감등으로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국내

선호도가 높은 삼겹살이나, 닭다리등  
특종부위의 수입은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5개년계획  
과 연계하여 양돈, 양계단지 조성사업은  
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 양돈단지 2개소와 양계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초지조성의 문제점과 현실성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사육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의 경쟁연한 연장등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소사육농가의 영  
세성과, 초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확보  
난은 물론, 조성후의 지속적인 비배관리  
를 위한 투자 비용의 부족등으로 정상적  
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80년대 초반의 소사육 열기가 고조  
되던 시기에 대대적으로 조성되었던 초  
지가, 80년대 중반기의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업 경영 의욕의 저하와 부동산  
투기붐을 타고, 외지인들에게 많은 면적  
의 초지가 매각된후 관리가 제대로 되  
지 않으므로 인하여, 초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실제 관리능력 범위내  
에서 실지 가축사육규모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조성해 나가도록 행정지도 및 지  
원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가축육종사업의 점진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시험연구기관인  
축산기술연구소의 업무외에 일반적인 가  
축자질개량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현재 가축번식수단으로 인공수정사업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혈통과 자질이 우수  
한 아비가축에서 생산된 정액의 보급과  
우량가축의 등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중  
에 있으며, 한우개량단지, 젖소능력배가  
마을 육성등 우량가축의 집단적 생산체  
제의 확보와 최근 시험연구사업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정란 이식사업,쌍  
태아 생산 기술개발사업이 불원간 실용  
화 보급단계로 까지 발전할 것이므로 가  
축개량사업의 전반은 매우 희망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산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김용욱 평창군수께서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고냉지채소와 품질인증을 획득한  
평창한우가 널리 판매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리면서 축산단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의 경영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그리고, 휴경농지의 활용방안으로 축산단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우강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의 경영규모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축산단지는  
한우와 낙농단지의 경우에는 단지당 3호  
이상의 농가가 공동참여하여 호당 100두  
이상 규모의 소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양돈단지의 경우에는 5호이  
상의 농가가 참여하여 1개단지당 15,000  
두이상 사육규모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  
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계단지는 역시 5호이상 농가가  
참여하여 150,000두 이상의 양계를 사육  
하는것이 기본 규모로 육성하고 있습니  
다.

○ 禹康鎬 議員 : 휴경농지활용 방안으로  
축산단지 조성된 여부는 실질적으로  
축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별다른 단지가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휴경농지를 활용  
하고, 같이 함께 장려하기 위해서 단지가  
조성되었는지 질문했습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시설부지 및 활용  
하는 면에서 농지를 쓰게 되겠지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축산업을 통하는 농  
가의 소득증대와 아울러서 축산경영 과

정에서 활성화 하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화로 생산하여 지류중진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휴경농지의 활용방안 이전에 축산업의 소득과 유기질비료 생산에 복합적인 차원이라고 생각 됩니다.

- 禹康鎬 議員 :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우선 본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상식적인 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소나 돼지는 지금 장평도축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닭은 도계사가 없음으로 시장골목에서 하루에 100~ 200마리씩 처리됨으로서 폐수 처리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鄭義秀 :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것과 한가지로 소, 돼지등은 지정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닭의 경우에는 현재 기존의 도축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계장이라는 별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규정하는 바 이외에 가검등 의뢰검사규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시설경영자에게 의뢰를 했을 경우에 이용한 것입니다.

가검등 의뢰검사규칙에 의한 도계장 시설은 C급 이상 지역과, 관광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그지역이 도계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처리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하지만 그지역내에서 유통되는 닭고기는 도계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기타지역에서는 현재 일반 시중에서 불편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李慶鎭 議員 : 시장에 한번씩 나가 보면 엄청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으시겠지만 가끔적이면 연구할 수 있

는 길이 있으면,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산림과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방제 및 피해목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방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소나무 면적이 14,860ha 중 피해면적이 12,722ha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등 전면적 방제가 불가능 하며, 산림시책상 정년제 방제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주요지역인 고속도로변, 국도변, 송이생산지, 국립공원 천연림 보호림, 우량소나무등을 절대방지 지역으로 금년도 수간주사가 3,400ha 지면약제방제 22ha 피해목벌채 1,660ha 총 5,322ha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간주사가 3,800ha , 지면약제가 60ha, 피해목벌채가 2,150ha 총 6,010ha로 690ha 를 금년보다 확대하여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목 피해 벌채에 대해서 사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이 12,722ha 중에 소생불가능지역이 1,253ha, 피해도가 심지역이 5,308ha , 피해도 중지역이 4,238ha 피해도 경지역이 1,923ha , 벌채대상지역이 6,512ha로서 금년도에 벌채계획이 1,660ha, 내년도에 2,150ha가 벌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7년도에 나머지 2,750ha를 벌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강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도 시설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산림군으로서 앞으로 임도개설시 문제점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피해로 피해방지를 위하여 종래의 임도시설을 km당 단비4,680만원을 설계

하여 시공하므로써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았으나, '96년도 부터는 현재 여건에 맞추어서 완벽한 설계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년부터는 임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은 내년도에는 임도시설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농가의 농작물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유실로 인하여 피해지가 많아 임도유실 자체가 '95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사이에 309ml의 호우로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풍수해대책법에 따라서 피해복구비 3억2,821만 2천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복구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수박밭 보상은 해주었는데, 임도피해는 보상을 왜 안해주냐고 말씀하셨는데, 수해피해 보상은 군자체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하면서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피해이므로, 불가피 군

에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국가 시책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호우 피해는 강원도 뿐만 아니라 인근도인 충청북도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내의 피해상황을 보면 임도유실이 3.57km, 산사태 127.3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의 피해상황을 보면 임도시설이 1.42km, 산사태 7.01ha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에 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작물 피해보상은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보상을 지금 현재 못해주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수해피해지 항구복구대책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피해 예상지구에 대해서는 강원도로부터 조사 지시가 있어 기 보고가 되었는데, 13.5ha가 상습피해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사방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완벽한 제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성 높은 산지자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평균 해발 500m이상의 고지대로서 '95년도 춘기 경제수 및 잣나무외 15종, 2,814,000본을 식재했습니다.

'96년도는 900ha를 조림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원도 환경연구소에서 자작나무 수액을 채취하여 음료수로 개발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는 생산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자작나무 수액 채취로 열악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아울러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초나무 식용및 향신료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산초나무 양묘를 100,000본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림계획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議員 : 김두경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벌채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산림내에 피해목이 2년전부터 죽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썩고, 생산가치성도 없고 해서, 또한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일괄해서 이것을 벌채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작년도에 고사목은 모두 벌채계획에 들어가 신고만 하면 벌채 할 수 있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되었어도, 산주들이 약 87ha정도를 벌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은것은 다시 봉고하여 전체적으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산주들이 안했을경우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 金斗經 議員 : 그것은 행정적 대책이

없습니까?

산주들이 안할때에는?

○ 山林課長 李基椿 : 저희군에는 솔잎  
혹파리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전국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심하고, 강원  
도중에도 평창군이 제일 솔잎혹파리피해  
가 심한데, 산주들이 배지 않는것을 강  
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산주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강제  
집행할 필요없이 희망하는 산주들 피해  
목을 우선적으로 벌채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제생각 같아서는 현재  
임목을 갖다 팔아도 제값을 못받거든요,  
그래서 생산가치성이 있을때에 베어서  
톱밥공장 같은곳에 팔면, 업자나, 산주  
들한테 소득이 더 낮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우강호 의원 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평창군의 임야 비율이 약 83%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96년도에는 임  
도사업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쓰레기매립장하고, 임도에 관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고, 공공시설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 양해가 되시면 공  
공시설물의 정의를 내릴 수 있으신지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공공시설물이라  
하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시설한 물건을  
공공시설물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쓰레기장도 여러사람  
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틀림  
없죠?

○ 山林課長 李基椿 : 공공시설물입니다

○ 禹康鎬 議員 : 임도도 산주나, 국가  
기관, 지방단체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 아니라  
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예 맞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럼 틀림없는 공공시  
설물이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 禹康鎬 議員 : 그런데, 똑같은 군청 산하에서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것은 공공시설물 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시설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보상할 수 없는지 다시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금액이 1억3,000만원에 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상월오개리가 그 정도 되고, 용평과, 봉평을 포함하면 2억4,500만원이 농작물 피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침출수 방지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나쁜 물이 들어가서 수박밭을 망가트렸으므로 군에서 책임이 있다 해서 보상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임도관계는 풍수해 대책법에 대해서 복구도 되고,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또 다시 피해보상도 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주기 싫어서 안하는것이 아니라 피해농가를 상당히 생각하여 각위원회에 많이 얘기하여 상부기관에 많은 질의도 해보고, 다른 부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인근 충청북도에도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있느냐, 전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예가 있으면, 그예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막연하여 못해 주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풍수해대책법에 의하면 공공시설물 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쭙어 봤습니다 분명히 공공시설물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검토만 해서 될 일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쓰레기장 관계는 침출수 방지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염물이 들어가서 수박밭을 망가트려서 보상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사업시행청이 평창군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맞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러면 임도는 사업시행청이 평창군이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맞아요.

○ 禹康鎬 議員 : 그런데 보상이 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 시행청인데,

○ 山林課長 李基樁 : 침출수 방지시설을 안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임도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임도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호우가 많이 내리지 않았을것 같으면 사실상 많은 사태도 나지 않았고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원천적인 부실공사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93년 제17회, 제18회 임시회나, 임도시설진상파악

특별위원회 답변자료를 아침에 제가 질문드린거 들었습니까?

그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사실상 임도가 금년도까지는 단비에 의하여 시공이 되었습니다. km가 단비에 의하여,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 수해피해가 많아서 문제점이 되어 내년부터는 설계금액에 설계가 입지에 따라서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따라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피해보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라고 종용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답사 갔다 온 처리계획에도 행정소송을 하라고, 이장한테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영월에서 할 수 없습니다.

춘천에 가서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것을 다시 묻게 되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라는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주민한테 피해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소송하지 않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사실입니다.

'93년도에 수해 재시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93년도보다 더 많은 수해가 올수 있었던 것은 사전대책이 많은 예산을 들여 호우방지 대책을 세웠지만 형식적인 호우방지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났다라고 본의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93년도 답변 요지에 보면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추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궁 당하신 산림과 공무원 계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93년도건은 잘 모르지만, 추궁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답변요지서가 거짓으로 작성 되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거짓이 아니겠죠. 틀림없는 답변이겠죠.

○ 禹康鎬 議員 : 제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국가 상대 보상청구가 아니고, 시행청 상대로 보상청구를 주민들이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현재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민사소송이나, 보상청구를 하셔서 승소가 되면 거기 따라서 군에서 보상을 해 줄수 밖에 더 있으나, 그렇지만 그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예 알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공사시공을 위해서, 그다음 저희 군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시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시공을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느분이 지더라도 반드시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임업협동조합이지만 전 산림조합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공검사를 제출할때 이 공사 도급 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도서, 재시방서, 품질관리 기능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 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될시는 하자 담보 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변상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평창군 산림조합장이 평창군수 앞으로 보낸 준공검사원입니다.

이문서 하나만 해도 충분한 현 임업협동조합에 재시공 시킬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산부족으로, 호우방지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의 문제도 있고, 시공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작물 피해보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청이 국가기관인 지방자치요, 평창군이 시행청입니다.

다시한번 제고하시고,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농작물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樞 : 보상이 될수 있으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될수 있으면이 아니고 되겠끔 해주십시오.

될수 있으면이 됩니까, 될수 있으면이 되겠끔 해주셔야죠.

○ 山林課長 李基樞 : 되겠끔 해줄려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는데,

○ 禹康鎬 議員 : 죽이는것 하고 죽였다는 틀린 말입니다.

○ 山林課長 李基樞 : 사실상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임도시설피해로 인하여 농작물 보상을 못해주겠다,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무작정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군의 예를 들어봐도, 보상을 해 줄려고 애를 써보니까, 대책이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못해 주는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군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과장님 현지에 가 보셨죠? 상월오개리, 16군데 산사태가 났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비만 오면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곳에 집을 짓고 살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2시에 산사태 나는날 올라 갔  
습니다.

무서워서 옆으로 비킬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밀려 내려 왔어요.

○ 山林課長 李基樁 : 피해가 많이 난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이 준공검사원 분명  
히 집행기관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 자료로 하여 임협에다가  
원천적으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합  
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금년까지는 임도  
시설을 km당 단비에 의해서 시공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임도시설을 제대로 할려  
면 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4,800만원정도 가지고 임도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완  
벽한 임도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에 의한 금액에  
의해서 시공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  
다.

○ 禹康鎬 議員 : 저희 군비투자 말고,  
임협에다가 재시공을 완벽하게 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킬수 없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재시공은 사실상  
천재지변에 의해서 호우피해로 났는데,

○ 禹康鎬 議員 : 그게 천재지변입니까?  
인재입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사실 예산이 부족  
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안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이것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인 호우피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재시공한다는 것은 사실 어  
렵다고 생각합니다.

○ 禹康鎬 議員 : 시공자가 재시공하겠  
다고 준공검사원 낼때 서약을 했는데도  
못합니까?

그럼 준공검사원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  
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그사람들이 시공  
을 완벽하게 못한것은 예산이 부족해 있  
어서 완벽하게 못했다는 것은 우리도 인

정을 합니다.

그것을 호우피해가 아니고, 일반적인 적은 피해도 그렇게 유실이 된다면 사실 시공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렇다고는 보지는 못합니다.

○ 禹康鎬 議員 : 준공검사 준공원 내주 실패, 부실공사 부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발견 안됐습니까?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준공검사를 내주 셧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그때는,

○ 議長 金樂雲 : 과장님 답변 중단하세요.

우강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도에 관련된 보충된 질문은 행정사무 감사때,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16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停會)

(16時 10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먼저 김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중에 도심지와 접근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심지와 접근성 해결방안을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교통망의 확충으로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전체 16개 노선의 254.9km에서 포장 연장 73.7km를 제외한 180.9km 중에 33.4km를 95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141억 800만원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포장을 28.9%에서 '99년까지 42.1%

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총 77개노선에서 연장 372km중에 76.6km를 확포장 하였으며, '95년부터 '97년도까지 매년 8.8km의 사업비 22억 7,000만원씩 투자하여 포장율19.2%에서 22.9%로 제고 시켜, 농어촌도로를 국도, 지방도, 군도등과 연결하므로서 도심지와외의 접근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 건설계획과,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관내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에는 '95년도 4월 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26.4km로 이를 공구별로 말씀드리면, 제 7공구는 10.2km로 봉평면 진조리에서 용평면 장평리까지, 제8공구는 9.9km로 용평면 장평리에서 용평면 속사리까지 제 10공구는 6.3km로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도암면 유천리까지로 하여

공구별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공구별 시행 업체를 말씀드리면, 제7공구는 남관토건,극동건설, 주식회사한광, 제8공구는 삼선건설, 대양건설, 제10공구는 동부건설, 남부토건, 일우공영이 각각 선정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주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4차선확장공사 설명회시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94년 11월 17일, '94년 12월 27일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 사항을 건의하였는바, 고속도로를 교차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및 농로는 대형차량이 통과 할 수 있도록 높이 4.5m이상, 폭 6m 이상 설치토록 하고, 인터체인지는 국도연결부분과 주요지점마다 설치계획 하도록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용지보상의 현실화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군에서는 '95년 6월 23일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6월 24일

위원장인 군수를 비롯하여 도로공사 관계관 1명, 관련공무원 5명, 이장 4명, 감정평가사 1명, 토지소유자 대표 7명등 19명이 참석하여 보상위원회를 개최한 바, 감정 평가법인 선정은 도로공사에서 1인, 본위원회에서 1인을 각각 선정하여, 적정가격이 평가되도록 하였습니다. '95년 8월 21일부터, '95년 8월 23일까지 감정 평가사인 현지 평가작업시에 군수님이 직접 출장하셔서 주민이 입회하여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2차례에 걸쳐 노력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책정될 보상가격이 현실지가와 차이가 많아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이 어려운 필지는 적정가격이 보상되도록 도로공사와 협의 하는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고수부지 양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고수부지 매립경위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 진부송정택지개발조성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흙막이 잔토가 발생됨에 따라 당시 진부면 번영회에서 체육공원시설을

위한 고수부지 조성을 건의하여 '93년 8월 총사업비 5,000만원투자하여 들망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오대천은 평창군과 정선군을 연결하는 준용하천으로서 하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나, 2개군이 연결되는 준용하천은 강원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군에서는 수차례 건의하여 강원도 치수과에서 '96년 당초 예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실시용역비 1억8,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오대천 정비 기본계획은 명년도 강원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중에 1순위로 선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기간이 최소 8개월이 소요되므로 투자사업은 97년부터 가능함에 따라서 시설별 세부사업 계획을 용역사업과 병행하여 계획 하므로써 보다 내실있는 경영투자사업과, 진부면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시책에 관한 질문중에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및 구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농업용수개발계획 및 구상에 대해서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소규모개발사업, 중규모 개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소규모개발사업은 관정 개발, 중규모는 저수지, 대규모사업은 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소규모개발계획과, 중규모 개발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암반관정은 총 계획량 53공이며, '94년까지 기 시행이 18공에 사업비 5억4,000만원, '95년도 중부리에 1공 사업비 3,000만원으로 총 암반관정 19공 사업비 5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은 총 계획량은 12공이며, '95년 하안미 지구에 사업비 2억 3,200만원으로 사업 완료 예정이었으나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예산이 삭

감되어 금년도에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에는 1억 5,200만원이 확정되어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암반관정 34공 사업비 10억2,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사업 11공에 사업비 24억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규모 농업용수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리 저수지는 농업용수개발10개년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예정지가 책정 되었으며, '93년 11월 부터 '94년 10월까지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95년부터 사업추진계획으로 위치는 대화면 신리며, 용수총량 1,524,200t, 농업용수 826,000t, 생활용수 715,000t, 규모로 사업비 85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농지개발조합에서 '95년 착수하여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제가 군정질문한 영동고속  
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대책에 관  
해서, 그리고, 진부고수부지 양성화대책  
에 관해서 그다음 농업시책에 대해서 상  
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 공사구간중 상진부1  
리 현재 도로공사대관령지부가 있는 위  
치쯤입니다.

그곳에 신설될 지역을 다리로 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도  
로공사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듣다는  
얘기를 해서 상진부 1리 주민들이 도로  
공사지부하고도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  
남게 될 구 고속도로 존속 문제가 민원  
이 야기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 동네 이주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도로때문에 굴박스 하나로 20년동안  
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

는 것은 굴박스를 포함해서 고속도로가  
될 그것을 완전히 없애서 다리로 시내가  
내다 보일수 있도록 하기를 절실히 원하  
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도로공사  
하고 적절한 협의를 해서 다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  
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도시과장 권순철  
입니다.

우강호 의원, 김종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부  
시가지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하수도로  
인한 상습수해피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부시가지는 중심 하수도 없이 도로변 하수도로 오수 및 하수와 농업용수를 병합처리 하고 있으므로 하수도 광경협소와, 도수로 및 지형의 구배 완만으로 집중호우시 침수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시가지 하수 및 우수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진부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0월 20일 환경부에 승인신청하였으며, 진부시가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하수도 및 상수도 관 교체사업을 실시코자 하며, 전체하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과다로 일시에 전부 할수 없기 때문에, 침수해결이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연차별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 도시면모를 일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가지 정비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부시가지 정비는 면사무소앞부터, 터미널까지와 하진부5리 부일가든 입구부터 하진부 1리 우시장 도로까지 보도정비를 상.하수도 정비사업과 별도로 추진중이며, 사업량은 연장 2km이며,

소요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서 '96년도에 도비 3억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가지정비사업비 4억5,000만원이 확보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한 부분부터 상.하수도 공사 및 도로부력 정비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정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택지의 향후실적분양 대책에 대하여는 송정택지는 총분양대상이 234필지 중에 72%에 해당되는 140필지가 분양되었고, 90필지가 미분양 되었으며, 미분양택지는 유형별로 그린생활영지 10필지와 단독주택 82필지입니다.

송정택지가 분양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금융및 부동산 실명제 실시 분양증지 지연, 택지내 주차공간부족 및 도로 협소 등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진부우회도로 개설 주변 관광레저 시설 조

성에 힘입어서 분양이 다소나마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내고장 소식지에 제도, 또 출향 인사에게 서한문 발송, 부동산 정보지 게재 등 다각적인 분양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며,

두번째로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송정택지내의 주차장은 당초 2개소 631m<sup>2</sup>를 확보하였으나 지역의 주차공간부족 및 건의에 따라서 단독주택용지 6개소 1,242m<sup>2</sup>에 녹지 2개소 377m<sup>2</sup> 등 총10개소 2,250m<sup>2</sup> 확보하여 최소한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옥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해소 하였으며,

세번째로 도로 및 기반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송정택지내에 도로는 당초 분양시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반시설로서 석축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축시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

습니다.

네번째로, 오·폐수 시설 상황및 대책에 관하여는 송정택지내에 오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250t 규모로 2억여원을 투자해서 완공 했고, 본 시설은 230여세대, 5인가족들입니다.

1,200여명의 생활용수처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내 오수량이 적어서 가동치는 않고 있으나, '96년부터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설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공동택지내의 오수처리는 건축허가시 본군에서 설치한 오수처리능력과 같은 종류의 자체오수처리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준공된 석미아파트의 경우 1일 230t 규모의 오수처리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 관리위원회 운영 실태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105개소의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자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가 매우 위급한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의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서 금년도 11월달에 담당 직원이 현지답사 하면서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수질관리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지도 하였으며, 수질관리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지도 하였으며, 또한 '96년도 상반기중에는 책임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위원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부담 처리 절차 및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공동시설관리 조례상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유지보수시에는 50%의 자부담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94년도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일반 시가지 상수도 급

수공사비에 최소 기준인 50만원을 수혜자 원칙에 의거 부담토록 하고, 20가구 이상인 마을로서 사업 시행을 절실히 요망하는 지역부터 우선순위에 의거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부담금 처리 및 절차는 마을을 선정한 후에 대표자 희망가구로 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부하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평창 임하리등 4개 마을에서 5,3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의 신설이나,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100억원이상으로 추정되어서 일시적인 정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수질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으로 물사용 주민들의 욕구가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는바, 예산확보나 사업 추진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짜리제 현대 레포션문화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도암면 횡계리 475번지에 주

식회사 대관령개발 김정래가 차항리 266 - 14번지에 건축하고 있는 호텔및 교육 연수원과 그 부대시설등 연면적 2,172평의 건물로서 90년 4월 4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90년 5월 11일 착공하여 '91년 11월 70%의 공정에서 건축주 부도에 의해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성이 검토되는 관광숙박업소 변경은 관광진흥법 제4조4항 및 동법 시행령제 4조1항의 규정에 관광숙박시설은 사업 시행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나, 건축주나 시공자인 고려개발에서 책임있는 공사마무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요건만 갖춘다면 본군에서는 타용도 변경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가지정비 추진계획 환경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접수하신것이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송정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세번째로 질문드린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문제 50%에 대한 부분이 평창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규정은 지금 못 의우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18조 보수비의 부담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물의 보수 제4장에 나와 있습니다.

1항으로, 이조항을 적용하여 새로운 시설을 하는 간이 상수도에도 조금전에 답변하신 50%라는게 과중하다고 하여 50만원정도씩 자부담을 시키는데, 사실 조례

에 의하면 50만원씩 자부담시켜야 할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전 백용덕 군수께서 계실때 1995년 3월  
달에 간이 상수도 현황 및 사업추진계획  
안을 지침으로 결재로 하셔서 50만원씩  
부담을 하신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그 답변 이전에  
상수도 시설이라는 흐름을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75  
년을 전후해서 간이상도를 시설할때에는  
자재 및 밀가루 정도를 주어서 마을에서  
노력부담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간이상수  
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후에 일반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 상수도를 할때  
에는 군에서 본선을 넣어 주고, 가정으  
로 끌어 들이는 지선을 평창읍이나 읍면  
단위에서 최소로 가장 가까운데 있는것  
이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참고로 하여 시

골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어떤 경우가 있  
냐하면, 본선이 지나 가는데, 그 본선에  
에서 200m 내지 300m~500m 떨어지는 농  
가도 있어요.

그런데, 그지선을 끄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300m~ 500m  
밖에 있는 사람은 부담영역이 300만원이  
될 수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50만원의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 禹康鎬 議員 :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  
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사  
업 얘기 하시는데, 새마을사업 할 당시  
에는 저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  
이고, 지금은 먹고사는것은 별로 걱정을  
안하고 문화시설이나 모든 생활시설을  
잘 할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평창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개정할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  
는거 아닙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그문제는 검토를  
못했는데, 추후에 검토를 해서 좋게 되

도록 자부담을 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지침으로 정해서 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추후 '96년도 사업시행부터는 주민 자부담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안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2억에서 2억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군에서 간이상수도를 놓아 주면서 1,000만원에서 1,300만원, 방림 계촌같은 경우는 3,000만원정도 자부담 금액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놓았다는 그런 상수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총 금액은 군에서 다 부담하고,

○ 都市課長 權純喆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을단위 규정에는 20호 이상을 했는데, 적게는 3~4호, 많기는 20호 미만인 곳에서 해달라고 하면 군의 재정 형편상도

어렵습니다.

○ 禹康鎬 議員 : 3~4호마을은 간이상수도 설치를 안해 주는 겁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뜻에서 이런것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은 것입니다.

○ 禹康鎬 議員 : 20호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을 두면 3~4호가 간이상수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지침이 50만원 자부담하는 규칙에 규정을 보면 20호 이상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점차 해소되면 어쨌든간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것은 지침으로 그렇게 정하는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96년도 사업부터 자부담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양질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물먹고 사는 돈만큼은 주민의 자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군

이 조금은 희생을 해서라도 좋은 자원을 개발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알았습니다.

○ 議長 金樂雲 : 김종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용도변경도 해 줄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까지 본인이 용도변경이라든가, 재시공에 대해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없습니다.

○ 金鍾永 議員 : 한번도 없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제가 신문에 기사가 나서 관계자에게 물어 봤더니, 저희 과에는 들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金鍾永 議員 :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출장을 해서 본인과 상의를 하던가, 용도변경을 원한다면 원하는 행정조치를 해주어서 사업이 빨리 시행토록 하던가, 또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몰라도 서로 협의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鎮 議員 : 이경진 입니다.

먼저 본 질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제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시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수도권 일부에서 러브호텔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억제하라는 지침이 내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할수 있겠끔 명시되어 있는데, 몇달이 지나도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례나 이런것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기 전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행정편위 위주를 앞세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그 문제는 충분히 알아보고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慶鎮 議員 :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보건사업과장 손동흠입니다.

우강호 의원께서 보건의료원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진료인원, 수입운영비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인력은 일반직이 30명, 보건직 34명, 간호직 10명, 의료기술직이 10명, 의사 19명으로 총 103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이 7억2,258만5천원이고, 세출예산은 27억4,303만4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7억9,816만4천원이며, 의약품 구입등 보건사업비가 5억2,512만2천원, 시설장비 보강등 운영비가 41억9,74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95년도 10월 30일현재 진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총진료인원이 24,472명, 진료수입 5억5,158만3천원이며, 월평균 진료인원은 2,447명이고, 월평균수입액은 5,515만9천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중 지소에서 관할 하는 가구수는 11,353가구이며, 인구는 39,963명입니다.

지소세출예산중 총액은 2억9,821만9천원



이고 이중 의약품비가 1억2,406만7천원  
관리비가 1억7,415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진료 인원은 35,602명이며,  
수입금액은 1억7,554만 6천원이고,  
월평균 수입금액은 1,755만5천원입니다.  
개소당 1일평균 21명 진료하며 가장많은  
곳이 대화보건지소로 40명, 가장 적은  
곳은 방림으로 6명정도 진료하고 있습  
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중 관할 가구수는  
3,467명이고, 인구수는 11,915명입니다.  
진료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8,637만5천  
원으로 그중 의약품비가 2,847만1천원  
관리비가 5,790만4천원입니다.  
진료실적은 19,527명이며, 수익금 총액  
은 6,827만9천원으로 월평균 682만8천원  
입니다.  
또한 1일평균 총 88명으로 개소당 5.5명  
을 진료하며, 총 16개소입니다.  
그중 진료실적이 가장 많은곳은 마지  
보건지소로 2,188명이며, 가장 적은 곳  
으로 면은으로 699명입니다.  
다음은 전체군민의 수혜지역 방안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료기관의 현황을 보면 우리관  
내에는 보건의료원 1개소, 보건지소 7개  
소 민간의원 14개소로 2차 진료를 담당  
하고 있으나, 관내 2,3차진료를 담당할  
종합병원이 없는 관계로 인근 지역인 영  
월, 원주, 강릉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교통의 여건의 변  
화로 주민들이 종합병원 이용을 선호하  
고 있어 관내 민간 의료기관 운영이 어  
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노후한 의료시설을 개선하  
고 장비를 보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점차적으  
로 의료체계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화상  
진료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난을 해소하  
고 읍면 보건지소의 검사장비를 보강하  
고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적극실시하여  
예방진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동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백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  
으므로 금후 더많은 이동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주민들에게 골고루 의

료혜택이 돌아갈 수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여건상 봉평, 용평, 진부, 도암지역의 주민들은 의료원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지역인 원주, 강릉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를 위한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장평 보건지소를 96년에 이전 신축코자 국비 신청중에 있으며,

여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기능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보건지소 통합이 바람직하나 지역간 이해관계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시설 확충, 인원 재배치를 통한 기능 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민의 숙원사업인 영안실을 조기에 마련토록 국비지원 신청중에 있으며, 타시군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석중인 원장과, 진료부장의 결원사유와 공석으로 인한 문제점 및

금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및 진료부장은 장학의사로 복무만료에 따라 공석중이므로 진료부장은 '93년 4월 30일자로 그만 두어 현재까지 결원중이며, 타시군 보건소장의 직급은 4급이나 우리군의 진료부장은 5급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어 지금까지 충원치 못하였으며, 보건의료원장은 지난 10월 10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각과 의사들이 전문의 5명으로 배치되어 있어 원장 및 진료부장 공석에 진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실정으로 현상태에는 진료의 차질이 없습니다.

원장및 진료부장의 충원계획은 우리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료봉사할 의사로 가급적 우리군 출신을 선임코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체국민 수해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고, 두번째 읍면별 진료 인원 비교와 수입 운영비등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개인 병원까지 포함해서 개소수별로 잘 말씀하셨는데, 보건의료원 관할인지, 다른과 소관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개인병원들의 휴무 상태, 비상벨 설치했다가 귀찮아서 떼어 버린 상태라든가 격 휴무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에서 관여 하지 않는겁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지도를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부에는 서울연합의원, 연세의원 두곳이 있습니다. 그 연세의원 같은 경우는 비상벨을 다 떼어 버렸어요.

그다음 교통사고 환자라고 전화를 하면 문을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응급환자는 문을 안열어 줍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치료를 하면 치료비나 돈을 다 받고 다른 응급실 있는곳으로 보내 주면 그 나름대로의 중간 리베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일반 응급환자들은 받지 않습니다.

수시로 의사 협의회 모임이다, 뭐다 뭐다 해서 한곳도 남겨두지 않고 문을 다 닫아 버려요.

응급환자가 발생 했을때에는 갈곳이 없어서 진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릉으로 갈수 밖에 없는 현실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실예를 들면 택시부에 가서 자료 조사를 하면 가장 정확하게 나올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다시한번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석 중인 원장 4급, 진료부장 5급문제에 대해서 진료부장이 5급이어서 근무를 회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곳은 4급인데, 저희군은 5급입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왜 그런가 하면 의료원장이 4급이기 때문에 진료부장

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군 보건소장 직급이 4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군 진료부장으로 올 것 같으면 보건소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 禹康鎬 議員 : 다른 의료 원장은 4급이 아니고, 다른군은 급수가 틀립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그전까지는 의료원은 4급이고, 보건소장은 5급이었는데, 작년부터 보건소장도 직급을 4급으로 높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4급이면 진료부장으로 오는것 보다 보건소장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네, 전체적인 원장이 공식중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이면 당연히 원장이 있어서 총체적 책임으로 책임하에서 보건의료원이 운영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지금 지난 10

월 10일 그만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료에는 지금 기존의 공중보건 의사가 없어서 전문의 5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네, 알겠습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먼저 원장님이 가정의학 전문의고, 지금은 공중보건 의들이 온사람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성형외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원장님하고 있어서 꼭 잘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오히려 실력이 좋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 禹康鎬 議員 : 실력이 좋고 안좋고를 떠나서 의료원이며, 원장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원장이 있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먼저 원장님들이 봉급 받는것을 위주로 여기를 위해서 일하는것을 소홀한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를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 또 우리평창출신이면 좋겠다

하여 시간을 두고 구할려고 합니다.

○ 禹康鎬 議員 : 네, 양질의 의슬을 가진 원장님을 모셔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만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商滿 : 부군수 박상만입니다.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및 통폐합에 대한 조례개정에 관련하여서 시행규칙이 미제정과 종전의 조례에 의거 예산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공고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개정된 조례

와 시행규칙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지 아니하고, 추가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사유는 담당 공무원의 미숙한 행정처리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의한 조례가 유효한 것으로 잘못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착오로 인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반영 한것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수축제정을 위한 부서와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잘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과의 발언도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 아침 강원일보 11월 17일자입니다.

평창군이 실려있는 지방면에 평창군의 폐지안적용, 특별회계예산안 제출무리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분개한 마음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인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공복으로서 중요한 회피하였다면 본회의에서 질문드렸듯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함을 다시한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관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용욱군수께서 정책의지가 필요한 부분등을 종합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平昌郡守 金容郁 : 존경하는 김낙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제36회 임시회가 개최된 이후 의원님들의 계속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계속된 군정질문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정의 구석구석을 짚어 주시고, 함께 걱정하여 주신점에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들께서 짚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모든 사항,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커다란 교훈과 경험으로 깊이 간직하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오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 중 중요부분 몇가지를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봉평도움정비 사업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였듯이 미확보 사업비는 의회에서 허락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 하겠습니다.

반면, 추진과정을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의 미협조로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와 오늘 기획실장과 건설과장이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문제는 제가 부임후 군 현안사항으로 파악 금년 8월 강원도 방문시 지사에게 의견을 건의 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문제는 기회가 있을때 마다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으며, 특히 현재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우리군과 영월, 정선군과의 행정협의회 구성되면,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등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와 군민협조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계속 주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문제는 저의 공약사업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보나, 어제 답변한바 있는 범군민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 의결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우강호 의원의 질문사항중 진부고수부지 사업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나, '96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진부 면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으며 진부면 번영회의 구상사업은 내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입니다.

군수인 저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편입니다.

국민과 군민이 낸 군 예산을 관계법을  
어기면서 까지 저의 결단만으로 실행하  
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법조인을 통해 다시한  
번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신규 임도시설 사업은  
당분간 중단하고, 기존 임도에 대한 보  
강사업만 실시하여 임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기구개편의 필요성을 취임후 절실히 느  
끼고 있어 내무과장이 답변하였듯이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으며  
후회없는 기구개편이 되도록 신중을 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의회의 승인  
을 거쳐 확정되겠으나, 의회에서 좋은  
방안이 있을시에는 사전 의견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의원의 질문중 발왕산  
개발의 관계는 저로서도 답답한 마음  
입니다.

우리군과 강원도의 노력과 군의회와 도  
의회의 노력에도 불과하고 매듭이 풀리  
지 않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의 끈질  
긴 노력에도 아직까지 다소 희망적이라  
는 명쾌한 소식이 없습니다.

군민께서는 평창군과 강원도, 평창군의  
회, 강원도의회, 지역국회의원의 노력의  
힘이 되고 정치적 결단을 촉구할 수 있  
도록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주셨으  
면 합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중 주요 부분  
몇가지를 강조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마는  
실과소장이 답변한 내용도 군수를 대신  
하여 답변 드린 사항인 만큼 답변 내용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군정질문 기간중 답변에 소홀하거  
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정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김용욱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용욱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이 의회와 집행  
부가 다시한번 군정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군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한 책임  
행정수행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1월 18일 12시에 개의하겠  
습니다.

그러면 제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5分 散會)

○ 出席議員

- |       |       |
|-------|-------|
| 議 長   | 金 樂 雲 |
| 副 議 長 | 李 相 薰 |
| 議 員   | 李 慶 鎮 |
| 議 員   | 劉 燉 文 |
| 議 員   | 李 洙 現 |
| 議 員   | 金 斗 經 |
| 議 員   | 禹 康 鎬 |
| 議 員   | 金 鍾 永 |

○ 出席公務員

- |         |       |
|---------|-------|
| 郡 守     | 金 容 郁 |
| 副 郡 守   | 朴 商 滿 |
| 農村指導所長  | 劉 載 國 |
| 企 劃 室 長 | 申 大 松 |
| 文化公報室長  | 高 昶 植 |
| 內 務 課 長 | 李 永 德 |
| 社會振興課長  | 宋 在 明 |
| 財 務 課 長 | 權 赫 昇 |
| 地 籍 課 長 | 南 大 鉉 |
| 社 會 課 長 | 金 榮 柱 |
| 環境保護課長  | 李 敬 洙 |
| 家庭福祉課長  | 朴 靜 子 |

産業課長	金時漢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畜産課長	鄭義秀
山林課長	李基椿
建設課長	洪基杓
都市課長	權純喆
民防衛課長	金昌吉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社會指導課長	尹澈竣
技術普及課長	李宇炯

○ 議會事務課

事務課長	權赫昇
專門委員	辛教善
議事係長	成京鎬
地方行政主事補	邊相得
地方行政主事補	李錠均

【 議 席 】

○ 議席表 ( 15 面에 실음 )